❦ 100일 잔치 소감문 ❦

- 매산가족모임 시흥 오여사 -

안녕하세요.. 오산선 선생의 엄마 시흥 오입니다.
짧다면 짧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길었던 5~6년이었습니다.. 소감문을 쓰려고 과거를 헤집다가 순간 느꼈던 단어는 고단함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늪에 빠져있다 나오기를 반복했고 직장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찌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겠습니까만 기쁨보다는 고통, 배신감, 불안감에 너덜너덜해진 시간이 더 길었던 듯합니다.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생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바쁘신 삶을 살았듯 저도 그렇게 살았고 또 제가 부모님의 부재에도 평범하게 지냈듯 아들도 그리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직장 가지기를 원해서 공부하란 잔소리를 좀 유달리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고1 후반기에 담배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자그맣고 여리한 나의 아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문제, 아니 저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좁은 생각에 엄청 야단치고 가방을 뒤지고 머리카락 냄새 맡기를 반복하며 서로를 옭아 매는 시간들이 이어 갔었습니다.. 고2 때 친구의 고가 아이폰을 떨어트려서 수리비 30만원 물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큰 금액에 화를 냈지만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였기에 친구와 직접 통화 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듯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친구들로부터 만원 이만원 돈 갚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용돈이 부족한가 싶어 그러려니 했었었는데, 어느 날 학원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크게 혼이 났었고 할머니 집에서 돈을 훔쳐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춘기의 조금 큰 일탈 정도로 생각하고 혼내고 마무리가 되는 듯했었습니다.

졸업 후 본격적인 사건사고가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특히 에어팟 거래 사기로 경찰서 조서도 받고 벌금 나와서 벌금 내라고 돈 입금해 줬더니 그 돈을 또 도박하는데 날리고 벌금 체납되어서 또 변제해 주고 사채를 써서 놀란 마음

에 남편 모르게 변제를 또 해주면서 어떡하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기를 바랐는데 대출 문제가 터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남편한테 사실을 얘기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손찌검과 고함소리가 뒤엉켰고 빚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면서 휴대폰 깡과 소액결제 등 각종 사고가 터졌고 짧은 가출이 반복됐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눈을 감으면 고시원 불 꺼진 방에서 몸을 둥그렇게 말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언제쯤 사라질까요? 잦은 가출과 반복되는 삶을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 저희는 과감히 집을 이사하기로 클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사를 하는 당일에도 아들은 가출 상태였고 이사 후 큰아빠의 중재로 집에 들어왔고 눈물로 애원했고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다짐했는데 악어의 눈물이었나봅니다.. 가출 상태에서 빚은 더 커졌고 일을 열심히 해서 갚으면 또 그만큼의 빚이 생겨 있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고 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하루 종일 시간 죽이기를 반복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뒤통수 부여잡았던 사건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도박 관련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인천의 병원에서 상담하고 약도 받아서 먹기로 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 으깨어진 약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저희만 마음이 급했었나 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때 당시 아들은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약을 먹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병원도 상담 치료도 저희가 그리 해야 한다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따라서 다녔던 듯합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괴로움은 사채 독촉 전화였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전화가 오면 덜컹 내려앉으며 가슴이 조여옵니다만 그때는 정말 죽어야 하나를 심각하게 혼자 생각했었지요..

더 이상 휴학을 미룰수 없어 복학을 해야 하는 날.. 아들은 문자를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연락을 했지만 차단 상태였고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습 기간에 친구에게 대출 종용을 해서 그 부모님이 알게 되고 학교에 알려졌던 거죠.. 남편은 교수에게 빌었고 변제를 하고 한 학기 유예를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아들의 졸업장을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눈물이 났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뒤 스스로 GA모임을 나갈 거라는 연락을 받고 어떤 곳인지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나온 곳이 2022년 12원 29일 이곳 매산모임이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것에 기뻤고 저도 같이 하기만 하면 금방 끊을 줄 알았고 성급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모임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사채 절도 사기, 가출 등등 불거지는 문제가 울 아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헛된 위안도 받았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봄 연수 때 도박문제 빚 문제를 모두와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다시 지인 빚과 휴대폰 소액 문제가 터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굽이굽이 천고비 만고비 돌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빚이 마치 제 빚인 냥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늘그막 한 인생이 불쌍하게만 생각됐는데 누군가가 아들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의 지나온 시간들.. 요즘 날씨처럼 해맑고 푸르러야 할 인생인데 줄담배와 피폐해진 정신을 되돌려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혼자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산선 선생 나의 아들과 딸, 남편 우리 가족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멀고 먼 길.. 회복의 길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인정합니다. 구구절절 두서없는 글귀를 나열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 추억으로 접어둘 글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박하느라 고생했고 피폐해진 정신 부여잡고 이 자리, 내 옆에 앉아있는 오산선, 내 아들 고맙습니다.. 아들은 군 최초로 GA를 만들어보겠다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진회색 인생에서 한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기분이었고 듣기만 해도 설레어집니다.. 꼭 희망이 이루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여 샛길로 빠져서 헤매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되돌아 바른길로 돌아올 거라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여사님들 함께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힘과 용기 얻어 반드시 회복의 길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남편의 메시지입니다..

오산선 이라는 불리는 나의 아들.. 100일 잔치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자리 못해 미안하다.. 어느 순간부터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돌덩

이가 조금씩 깨지고 깨져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될 그날을 믿는다. 사랑한다.

- 창원에서 아빠가...

라고 썼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일잔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나 봅니다. 온다는 소식 없이 멀리서 4시간 운전하고 갑자기 나타나준 남편 고맙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된듯합니다..